

## Persona

### 정희승

이 프로젝트는 초상사진에 있어서 Mask와 Face의 관계를 탐구한다. 페르소나는 원래 그리스시대의 배우들이 무대에서 썼던 가면을 뜻하는데,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개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 안에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며 타인에게 드러내는 사회적, 심리적 가면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 모두가 사회 안에서 맡은바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 같은 존재라는 애긴데, 배우란 어찌 보면 이러한 우리 모두 안에 내재된 은밀한 심리적 기재를 드라마틱하게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직업이라 여겨진다. 이 프로젝트는 배우들의 감정표현, 그 중에서도 특히 슬픔과 비탄의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들은 영화나 TV를 통해 배우들의 극적 감정을 바라보는 일에 매우 익숙해져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타인이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표정이나, 심하게 울고 난 뒤의 붉게 충혈된 눈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사진은 얼마든지 자세히, 오랫동안 타인의 얼굴을 관찰할 자유를 허락함으로써 우리의 관음증적 욕망을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타인의 슬픔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비탄에 잠긴 타인의 얼굴은 우리의 감정적인 장벽을 허물고 그 방어막을 뛰어넘는 참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공적, 사회적 삶 속에서 드러내지 않으나 개개인의 내면에 내재된 존재론적 슬픔과 연민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아픔을 타인의 얼굴에 투사시키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게 어떤 경우든 이 순간, 단지 그들의 슬픔을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우리 안에선 연민이 샘솟고, 타인과 나는 강한 감정의 끈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배우들이 맡은 캐릭터의 심리적 고통을 연기하면서 그 가상의 심리상태에 몰입된 순간을 포착함으로써, 그들의 얼굴에서 드러난 감정의 진정성과, 카메라가 진정 대상의 내면과 그 본질을 포착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본질이란 카메라와, 사진에 찍힌 대상, 그리고 관람자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배우들은 사실적인 캐릭터를 창조하기 위해 종종 감정이입을 통해 배우가 연기하는 가공의 인물을 내면화하고 동일시하는 심리적 과정을 거친다. 물론 독일의 극작가 브레히트는 소격효과라는 이론에서 배우들로 하여금 캐릭터에 감정적으로 동화되지 말고 비평적 거리를 유지할 것을 중용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저 배우의 연기가 리얼하다고 할 때, 이는 얼마나 감정이입을 성공적으로 하였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연기란 궁극적으로 거짓으로 꾸며진 상황을 사실인양 관객을 속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리얼한 연기'라는 말은 이미 파라독스를 내포한다. 더욱이, 배우들이 감정연기를 하면서 종종 자신이 실제로 겪은 아픈 과거나 슬픈 감정의 기억들을 인물에 투사하는 이른바 Method acting이란 테크닉을 사용하기에, 더더욱 감정연기 안에서 픽션과 리얼리티, 마스크와 페이스, 이미지 메이킹과 자기몰입 사이의 경계는 허물어지게 된다. 이 일련의 사진들은 이러한 경계지점을 포착 한다. 관객들은 비록 이 모든 상황이 스테이지 된 것임을 명백히 알기에 사진이미지로부터 브레히트가 말한 '비평적 거리'를 유지하겠지만, 동시에 사진에 드러난 배우들의 '리얼'한 감정표현을 통해, 사진속의 인물과 심리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것을 기대한다. 이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진이미지를 통해 인물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를 갖게 되길 희망한다.